

도입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안에 하루를 보내며 이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본문 마태복음 6:9-13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tthew 6:9-13

- 9 Pray then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 10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 11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 12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 13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는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자비로우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본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친밀함과 경외심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질서 정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혹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내 욕심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뢰와 겸손, 그리고 기쁨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를 아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빚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혼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헌신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기도 공동체로 서도록 부르십니다.

설교

In Matthew 6, Jesus gives us the Lord's Prayer, not as a formula to recite mindlessly but as a pattern for how God's children speak to their Father. Prayer begins with "Our Father," reminding us that God is near and tender toward His children. Yet it continues with "hallowed be Your name," showing that the One who loves us is also holy, majestic, and worthy of reverence. Prayer holds together both intimacy and awe. The Lord's Prayer reorders our hearts. Before we ask for daily bread or forgiveness, we are taught to seek God's kingdom and will. True prayer reshapes our desires so that God becomes our deepest joy and His mission becomes our greatest concern. For us, that means regularly asking: Do my prayers center more on my wants, or do they align with God's will and kingdom purposes? When we pray,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we learn daily dependence on the Father who provides. In practical terms, this challenges us to trust God with today's needs instead of being crushed by anxiety about tomorrow. "Forgive us our debts" reminds us to keep short accounts with God, confessing sins quickly, and also to extend forgiveness to others instead of holding grudges. And "Deliver us from evil" teaches us to be alert to temptation, relying on God's strength instead of our own. The Lord's Prayer is not transactional but transformational. It is the means by which God gives us the unimaginable gift of His presence. Through it we grow in trust, humility, and joy, learning to rest in His daily grace. Each time we pray as Jesus taught, we are shaped a little more into children who know their Father, love His kingdom, and walk in His ways. Finally, the Lord's Prayer reminds us that we do not pray alone. It begins with "Our Father," not "my Father," showing that prayer is both personal and communal. As the church prays these words together, we are united in our dependence on God and our commitment to His kingdom. This calls us to be a praying community — carrying each other's burdens, celebrating each other's joys, and seeking God's will together.

나눔질문

1. 주기도문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포커스를 맞추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는 기도문입니다. 최근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The Lord's Prayer is not a prayer of empty repetition, but one that focuses on God the Father, confessing His character, and leading our lives to fulfill His will. Recently, wha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opic in your prayers? Let's share together.

2.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잘못된 양심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변화시켜갈 수 있을까요?

Through the Lord's Prayer, we are able to bring the unsettled parts of our lives before God and put them in order with a pure heart. Is there someone you have not been able to forgive, or a desire that comes from a guilty conscience? How can these be transformed within the kingdom of God?

3. 성경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거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합니다. 무엇을 하면 이루어주seyo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고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으로 이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Scripture shows us that the Lord's Prayer is not a simple way of making transactions with God. Instead of saying "If I do this, then grant me that," let's reflect on what we truly need to ask the Lord for today, lift it up to Him, and think about how we can rejoice in that.

마침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열정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rd of love, we thank You for teaching us how to pray through the Lord's Prayer. Help us to seek You with all our hearts today, not chasing after our own desires, but seeking only Your will. Make us passionate intercessors who bring forth Your kingdom in our lives. We thank You and pray in Jesus' name.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ord of love, may the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s always seek Your will, speaking in ways that encourage and lead our brothers and sisters in love. Help us to lay down our pride and to value others above ourselves in our daily lives. We thank You and pray in Jesus' name. Amen!

기도제목

1.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Lord, make me not a person who prays in a transactional way, but one who humbly seeks Your will.

2.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상황, 그리고 나의 욕망을 내려 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Help me to lay down the people and situations I cannot forgive, as well as my own desires, and become one who fully seeks Your will in Christ.